

제 3 교시

논술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1. 개인에게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점들을 비교하시오.(600~800 자, 40 점)

(가) 최근 들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덕률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하여 법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박과 같은 부도덕이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회는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이때 법의 목적은 사회의 도덕을 수호하는 것이고, 법원의 임무는 어떤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회라도, 그 사회를 결속시키는 토대는 공통의 정서가 가지는 응집력이다.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통의 생각들이며, 여기에는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법자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입법을 통해 강제되는 도덕은, 그 사회에 의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사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입법자는 그러한 생각들을 법으로 제정한다. 예를 들어 그는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의 장단점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는 일부일처제가 자기가 속한 사회 구조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한 사회의 도덕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도덕의 좋음과 옳음을 보증할 필요는 없다. 그에게 위임된 권한은 사회의 토대를 보존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정부가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부가 모든 시민들을 자유롭고, 독립되고,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물음과 같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답변이 있다. 첫째는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 정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둘째는 정부가 그런 문제에 중립적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理論)이 없으면 정부가 시민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더 설명해야만 하겠다.

첫 번째 입장은 정치적 결정이란 무엇이 좋은 삶인가 또는 무엇이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특정한 관념으로부터 가능한 한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시민들은 좋은 삶에 대해 서로 다른 관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집단 또는 강력한 집단이 어떤 관념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 관념을 더 선호한다면 그 정부는 시민을 동등하게 다루지 않는 셈이다. 두 번째 입장은 동등한 대우의 내용 자체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좋은

정부는 좋은 삶을 육성하는 정부이다. 그리고 동등한 대우란 각각의 사람을 대우할 때, 당사자가 실제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를 대우하는 것이다.

두 입장은 모두 개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하지만 그 존중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입장을 취할 때에만 각 개인이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평등의 원칙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다수의 선호에 따라 좋은 삶을 규정하고 이것이 공적 도덕으로 법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적 선호를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는 파괴되고 만다.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관념들 사이에서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특이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지배적 선호를 내세운 제도적 압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들이 좋은 삶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좋음의 객관적인 내용은 보편적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좋음에 관한 이러한 관념을 시민들의 마음속에 불러넣는 것이다.

사람들이 도덕적 삶을 지향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이 필수적이다. 자발적으로 절제 있고 강인하게 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적 설득보다 힘, 고귀한 가치보다 처벌의 위협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 어떤 사람이 한두 차례 절제 있고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러한 행위를 적어도 고통스럽게 느끼지는 않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이렇게 기능하는 것은 전제와 억압의 다른 형태라고 비판한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자유와 관용의 이름으로 여러 도덕적 관념들 가운데서 국가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립 자체도 일종의 도덕적 판단의 결과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불편부당한 도덕적 판단도 그 안에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관용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는 도덕적 삶을 완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2.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보기>에 서술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현재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1300~1500자, 60점)

※ 조건 :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 모두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킬 것.

특정한 의
예를 들
서명하건
시민은 그
가질 수는
조정하고
기관이 야
대해서는
지구적 차

(나) 과
있다. 이러
중심으로
사유에서
그래서 우
사회 역시
공유한다.
개인들
개인들에
잘못이다
원자론적
관계의 산
독립된 존
능력의 측
사회는
그 집단의
공유하는
구성원의
구성원의
지위와의
정체성의

(다) 민
말하는 개
준다. 왜냐
민족적 책
어떤 잘못
되는 잘못
따라서 정
책임을 수
이러한
연관시키
민족적 정
인권침해
필연적으
통해 이 인
업적에 대
가지게 될
자신에게
낳은 동일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